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 (생활과 윤리)

| | | | | | | | | | | |
|----|--|------|--|--|--|--|---|--|--|----------|
| 성명 | | 수험번호 | | | | | 3 | | | 제 () 선택 |
|----|--|------|--|--|--|--|---|--|--|----------|

1.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윤리학은 현대인의 삶의 여러 영역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도덕 현상의 과거나 현재를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 것을 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덕 현상을 서술하는 것에 그치는 연구는 심리학이나 사회학의 일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는 이 사람들의 입장이 ㉠고 생각한다.

- ① 도덕 현상에 대한 객관적 탐구의 필요성을 간과한다
- ② 도덕 현상의 인과 관계에 대한 설명의 필요성을 간과한다
- ③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지침의 필요성을 간과한다
- ④ 도덕 추론 과정의 논리적 타당성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⑤ 옳은 행위의 기준이 되는 보편적 원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2. 갑 사상이 을 사상가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음악을 하는 것은 그르다. 세금으로 만든 큰 종을 치고 큰 북을 두드리며 금슬을 타고 피리를 불면서 춤을 춘다고 해서 백성이 입거나 먹을 것을 얻을 수는 없다.
 을: 음악이 종묘 가운데 있어 군주와 신하가 함께 들으면 화합하여 공경하게 되고, 한 가정 안에 있어 부모와 형제가 함께 들으면 화목하여 친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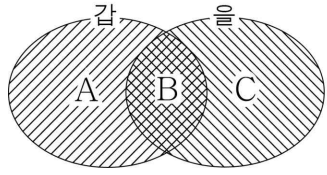
- ① 음악은 백성의 마음을 어질게 할 수 있는 것임을 간과한다.
- ② 음악을 장려하는 것은 사회적 화합에 이바지함을 간과한다.
- ③ 음악은 예와 더불어 백성의 도덕적 삶에 기여함을 간과한다.
- ④ 음악을 즐기는 것은 백성에게 이롭지 않은 허례임을 간과한다.
- ⑤ 음악은 의로움보다 이로움을 추구하므로 그른 것임을 간과한다.

3.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수령은 백성을 편안히 할 방책을 헤아려 지성으로 잘 되기를 강구해야 한다. 또한 청렴(淸廉)하지 않으면 백성이 도둑이라고 욕할 것이니 탐욕을 경계해야 한다. 청렴은 선정(善政)의 원천이자 덕행의 근본이다.
 을: 군주는 백성의 생업을 마련하되 반드시 위로는 부모를 섬기기에 충분하고 아래로는 처자식을 먹이기에 풍족하게 하여야 한다. 백성은 일정한 생업(恒産)이 없으면 일정한 도덕심(恒心)을 가질 수 없다.

- ① 갑은 수령에게 도덕성과 직무 수행 능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 ② 갑은 수령이 뇌물과 사적인 정에 얽매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 ③ 을은 백성에게 생활의 기반이 되는 직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 ④ 을은 군주가 백성과 달리 모든 일에 능통해야만 한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는 정치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4.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 |
|-----|--|
| (가) | <p>갑: 분배 정의의 원리는 분배가 진행되는 과정을 명시해야 하며, 결과를 규정하거나 그 과정이 충족시켜야 할 정형적 기준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p> <p>을: 분배는 불운한 자를 포함해 모두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불운한 자의 처지가 향상된다면 소수가 더 큰 이익을 취해도 정의롭다.</p> |
| (나) |  <p style="text-align: right;"><범례> 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p> |

< 보기 >

ㄱ. A: 모든 재화는 취득과 이전의 원리에 의해서만 획득된다.
 ㄴ. A: 최소 수혜자를 위한 재분배 정책은 소유권을 침해한다.
 ㄷ. B: 분배 정의는 자유 경쟁 시장 체제에서 실현될 수 있다.
 ㄹ. C: 천부적 자질을 이용하여 재화를 획득해서는 안 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5. (가), (나)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결핍으로 인한 고통이 제거된다면, 소박한 음식도 사치스런 음식과 같은 쾌락을 준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박한 음식에 길들여지면 완전한 건강을 얻게 되며, 사치스러운 것들과 마주쳤을 때 동요하지 않게 된다.
 (나) 사람들의 공(功)이 두루 쌓인 음식을 부족한 덕행으로 감히 받기 어렵다.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중생과 함께 탐욕을 버리고 몸의 여움을 방지하는 것으로 죽함을 깨달아, 도업(道業)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 ① (가): 먹는 행위를 통해 모든 쾌락이 충족됨을 알아야 한다.
- ② (가): 먹는 행위를 통해 허기를 면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 ③ (나): 먹는 행위를 통해 자기 자신의 부덕을 성찰해야 한다.
- ④ (나): 먹는 행위를 통해 만물의 상호 연관성을 깨달아야 한다.
- ⑤ (가), (나): 먹는 행위를 통해 절제하는 태도를 배워야 한다.

11.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적절한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 |
|-----|--|
| (가) | <p>갑: 모든 형벌은 악이다. 공리의 원리에 의하면 형벌은 그것을 통해 더 큰 악을 없애는 것을 보장하는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한다.</p> <p>을: 사형이 주는 인상이 대단하더라도 망각의 힘을 이겨낼 수 없다. 형벌은 강력하지만 일시적 인상보다는 약하더라도 지속적 인상을 제공해야 한다.</p> <p>병: 살인을 한 사람은 자신이 죽임을 당해도 좋다고 동의한 것이다. 사회 계약은 일반 의지에 따라 시민의 생명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p> |
| (나) | <p style="text-align: right;"><범례> →: 비판의 방향 A~F: 비판의 내용</p> <p style="text-align: right;"><예시> (갑) → A → (을) A는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임</p> |

< 보 기 >

ㄱ. D: 시민은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를 국가에 양도할 수 없음을 간과한다.

ㄴ. A, C: 형벌은 사회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과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ㄷ. B, E: 형벌이 범죄자의 교화에 기여하는 정도는 형벌의 양과 비례함을 간과한다.

ㄹ. D, F: 형벌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 집행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2.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인간은 그저 마음이 끌리는 대로 행위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도덕 법칙을 따르려는 의무 의식에서 비롯된 행위를 해야 한다.

을: 인간의 의무는 배려하는 자와 배려받는 자와의 직접적인 만남 속에서 일어난다. '나는 해야 한다.'는 것은 욕구나 성향을 나타낸다.

<문제 상황>

A는 홍수로 피해를 겪고 있는 ○○ 지역 주민을 돕기 위해 봉사 활동을 하러 갈지, 여행을 갈지 고민하고 있다.

- ① 갑: 자신이 지닌 경향성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함을 명심하세요.
② 갑: 의무와 일치하는 행위만이 도덕적인 행위임을 명심하세요.
③ 을: 자신의 감정보다 보편적인 도덕 원리에 따라 행동하세요.
④ 을: 주민의 고통에 공감하는 자연적 정서에 따라 행동하세요.
⑤ 갑, 을: 주민에게 결과적으로 이익을 줄 수 있도록 행동하세요.

13.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도덕의 문제가 개인적 차원에서 집단들의 관계로 옮겨 갈수록 이기적 충동이 득세하게 된다. 아무리 강한 내면적 억제도 이기적 충동을 완전히 제어할 수는 없으므로 사회적 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억제는 사회적 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 ① 개인의 선의지가 없다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② 개인의 사회적 동정심이 확장되면 사회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
③ 올바른 정치적 도덕성은 비합리적인 수단의 사용을 배제한다.
④ 개인의 내면적 억제력은 개인이 속한 집단의 크기에 비례한다.
⑤ 정의 실현을 위해 강제력을 최대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4.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들은 증가하는 데 반해 장기 기증자는 줄어드는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뇌사자의 장기 기증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을: 동의합니다. 다만 뇌사자가 사전에 장기 기증 동의 의사를 밝힌 경우에만 장기 이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갑: 아닙니다. 장기 기증 활성화를 위해서는 뇌사자가 사전에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이를 잠정적 동의로 간주하여 장기 이식이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개인의 자율성이 침해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 ① 장기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가?
② 장기 기증은 명시적 동의를 한 경우에만 할 수 있는가?
③ 장기 기증 거부 의사가 있어도 장기 이식을 할 수 있는가?
④ 장기 기증은 불치병에 걸린 환자를 치료하는 데 기여하는가?
⑤ 장기 기증을 위해 뇌사를 죽음의 판정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가?

15.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동물에게 고통을 야기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큼 동물 실험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면, 동일한 지적 수준에 있는 인간에게 고통을 야기하는 실험에도 동일한 주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한쪽은 우리 종의 구성원이고, 다른 한쪽은 아니라는 차이에 호소하는 것은 옹호될 수 없는 편견에 불과하다.

< 보 기 >

ㄱ. 동물의 이익 관심을 고려하지 않는 동물 실험은 부당한가?
ㄴ. 실험실 동물을 착취하는 것은 중 차별주의적인 행위인가?
ㄷ.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실험을 금지해야 하는가?
ㄹ. 인간과 동일한 권리들을 지닌 동물을 실험하면 안 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6.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우리는 시민 불복종을 통해 다수자가 갖는 정의감을 나타내게 되고,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 협동체의 원칙이 존중되지 않고 있음을 선언하게 된다.
 을: 우리는 사사건건 다수자가 지배하는 정부를 정의롭다고 말할 수 없다. 다수자가 아니라 양심이 지배하는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법보다 정의에 대한 존경심이 필요하다.

- ① 갑: 법률과 양심을 시민 불복종의 최종 근거로 삼아야 한다.
- ② 갑: 시민 불복종은 헌법을 규제하는 정의의 원칙에 위배된다.
- ③ 을: 다수가 아닌 개인은 시민 불복종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④ 을: 정부가 불의한 법을 개정할 때까지는 법을 준수해야 한다.
- ⑤ 갑, 을: 시민 불복종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양심적 행위이다.

17. 다음 가상 편지의 입장에서 강조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에게
 자네가 형과 우애 있게 지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가 좋네. 자네가 형을 대할 때 이황 선생을 본받았으면 하네. 선생은 선생의 형이 집을 방문하면 문밖에 나가 맞이하셨고, 반드시 차례대로 자리에 앉았네. 형에게 온화하고 공손하게 삼가며 대하는 기품이 밖으로 넘쳐나 바라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효계(孝悌)의 마음이 일게 하셨네. 선생의 형이 문안에 들어오시면 항상 선생에게 겸양하셨다고 하니 두 분의 모습이 참 보기 좋았을 것인데. ... (후략).

- ① 형제는 동기이므로 사양하며 지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 ② 형제 간에는 공경을 실천해야 하므로 권면하지 말아야 한다.
- ③ 형제는 사랑하며 같이 노는 친구로 순서가 있어서는 안 된다.
- ④ 형은 아우를 꾸짖어도 아우는 형의 허물을 덮어 주어야 한다.
- ⑤ 형제는 서로 의리를 바탕으로 성의를 다해 예로써 대해야 한다.

18.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생명을 얻는 것은 때를 만난 것이요, 그것을 잃는 것은 자연의 변화를 따르는 것이다. 자연의 변화에 순응하면 슬픔이나 즐거움이 끼어들 수가 없다. 이것이 이른바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인 것이다.
 을: 죽음이 단지 누구도 어쩔 수 없는 불행으로서 자기 절멸이라면 죽음은 더 이상 한계 상황이 아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실존의 가능한 심연을 일깨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 보 기 >
 ㄱ. 갑: 삶과 죽음은 분별할 수 없는 순환의 과정이다.
 ㄴ. 갑: 죽음은 또 다른 존재로 윤회하기 위한 과정이다.
 ㄷ. 을: 죽음은 참된 실존을 깨달을 수 있는 한계 상황이다.
 ㄹ. 갑, 을: 인간은 죽음에 대한 불안을 극복할 수 없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국가 간에는 도덕적 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므로 전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을: 참전 결정, 전장에서의 전투 과정, 전쟁 종식과 평화 정착 단계에서 정당성을 갖추어 정의로운 전쟁만을 해야 한다.
 병: 좋은 전쟁이나 나쁜 평화는 결코 있을 수 없다. 모든 전쟁은 부도덕하며 그 자체로 정당화될 수 없다.

- ① 갑은 국가가 자국의 존속을 위해 전쟁을 할 수 있다고 본다.
- ② 을은 반인권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전쟁이 가능하다고 본다.
- ③ 병은 침략을 당한 경우 비폭력 저항운동을 할 수 있다고 본다.
- ④ 을은 갑, 병과 달리 전쟁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 ⑤ 갑, 병은 을과 달리 전쟁을 도덕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20.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사랑은 인간으로 하여금 고립감과 분리감을 극복하게 하면서도 각자의 특성을 허용하고 각자의 통합성을 유지하게 합니다. 또한 사랑은 수동적 감정이 아니라 능동적 활동입니다. 사랑의 능동적 성격을 말한다면, 사랑은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준다고 하는 행위는 활동성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즐겁습니다.



< 보 기 >
 ㄱ. 사랑은 서로의 개성을 긍정하는 합일을 지향한다.
 ㄴ. 사랑은 상대방을 자신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ㄷ. 사랑은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의 생동감도 고양시킨다.
 ㄹ. 사랑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빠지는 것이다.

-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 (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